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및 우울의 관계: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

문소현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Relationship of Attachment Security, to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etency

Moon, So-Hyu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security to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etency in relation to attachment security and the other variables was investigated.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94 students in grade 5 or 6, an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SPSS/PC 12.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The instruments used were Kerns, Klepac and Cole's Security Scale, La Greca & Stones' Revised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SASC-R), Cho and Lee's Korean form of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and Harte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the variable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lso, self competen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elf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to attachment security. **Conclusion:**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programs including strategies to increase self competency should be developed. These programs can increase self competency which has a mediator role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the other variable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Key words: Attachment, Anxiety, Depression, Self concept, Child

서론

연구의 필요성

사회불안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상황 및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사회적 회피와 괴로움으로(La Greca & Stones, 1993), 사회불안을 진단받는 평균 연령은 청소년 초기와 중기이지만, 일부 연구들에서 8세 미만 어린아동들

도 사회불안을 진단받으며, 5-18세 연령 아동들에서 임상수준 이하의 사회불안은 꽤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umariu & Kerns, 2008). 우울은 사회불안과 유사하게 또래관계 문제와 사회고립과 관련되어 보고되고 있으며(La Greca & Lopez, 1998),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장애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되지 않고 있으나, Mathet, Martin-Guehl,

주요어 :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우울, 자기유능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oon, So-Hyu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252 Daeho-dong, Naju 520-714, Korea
Tel: 82-61-330-3587 Fax: 82-61-330-3580 E-mail: bonjourmsh@dshu.ac.kr

투고일: 2010년 3월 19일 1차수정: 2010년 4월 9일 2차수정: 2010년 4월 20일 3차수정: 2010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 2010년 4월 22일

Maurice-Tison과 Bouvard (2003)은 13세 미만 아동 10명 중 1명꼴로 우울장애가 나타나며, 청소년 하위그룹에서 유병률은 5%였음을 지적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장애 선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사회불안 및 우울은 상대적으로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논의되는 개념이지만(Smári, Pétursdóttir, & Þorsteinsdóttir, 2001), 장기적으로 성인기 사회관계에 종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애착이론의 성인애착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다른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제를 밝히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며(Vertue, 2003), 점차적으로 정신 병리학을 설명하는데 영향력 있는 모델로 애착이론이 적용되고 있으며 초기 양육행동이 주요 우울장애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불안장애와 관련된 심리 사회적 요인을 설명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ifulco et al., 2006).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사회불안의 주요 특징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불안정 애착일수록 사회적 회피가 높았으며(Eng, Heimberg, & Hart, 2001), Allen, Moore, Kuperiminc과 Bell (1998)은 애착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부모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애착 이론은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 관계를 이해하고 불안장애를 설명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지지결여는 우울과 불안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학교 생활 및 또래 간의 확장된 사회활동의 증가로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신뢰적인 측정도구로 애착모델과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 애착과 아동기 정신적 어려움 간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자기유능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와 감정의 요소를 포함하여 스스로 자신이 지녔다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판단, 가치감을 의미하는 것으로(Harter, 1982), Yarcheski, Mahon, Yarcheski와 Cannella (2004)에 의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자기 유능감은 아동의 긍정적인 건강과 건강행위의 예측인자 중 하나이며, 아동의 건강과 행동에 영향을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동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지지된 유능감 기반 우울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수용 정도와 학문적 유능감에 대한 자신의 낮은 평가는 우울증상 발현에 기인하며, 자아가 지각한 유능감 영역은 우울뿐 아니라 다른 사회병리적 측면인 사회불안의 위험요인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ole, 1990, 1991). 사회불안과 우울은 지각한 유능감과 관련

되어 있는데, 우울은 낮은 학업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불안은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Uhrlas, Schofield, Coles, & Gibb, 2009). 선행연구들은 자기유능감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편,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적응이나 안녕과 관련된 후속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Roberts, Gotlib과 Kassel (1996)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 증후군 변량의 단지 12%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Park (200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애착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상이나 자존감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는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것인데 반해 사회불안 및 우울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므로 선행되는 매개변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수행된 애착과 정신적 건강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애착안정성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아인지에 대해 다영역적으로 접근한 자기유능감을 매개변수로 고려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 등의 자기 관련적 변인은 애착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며 이러한 특징들이 연합되어 이차적으로 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칠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애착과 사회불안, 우울과 관련하여 단선적인 관계나 상대적 영향력만을 규명한 것으로, 더욱이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또래들과 사회적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비교를 통해 자기개념이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에 자아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자기유능감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학령기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 예방 및 중재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 우울, 사회불안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애착안정성, 우울,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서술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 B구에 소재한 M초등학교와 J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들로 편의표집하였으며,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 후기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가능하여 본 연구 도구에 대해 이해가 가능한 M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전수와 J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로 하였을 때 6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M초등학교 102명, J초등학교 92명으로 총 194명이었다.

연구 도구

애착안정성

Kerns, Klepac과 Cole (1996)이 제작한 '애착 안정성 척도' (The Security Scale)를 Park (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중기 아동기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부모-자녀관계에서 지각하는 안정감을 평가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의존성 척도와 가용성 척도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아동이 애착 대상자를 가용하고 반응적인 존재로 믿는지를 측정하고, 2)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애착 대상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3) 애착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5점에서 60점까지이며 안정성의 연속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7문항은 역채점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Park (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0$ 이었다.

사회불안

La Greca와 Stones (1993)가 개발한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검사(Revised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SASC-R])를 Yu (200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이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살에서 12살

의 아동에게 적합한 도구이며, SASC-R은 3개의 하위요목, 즉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인 사회불안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2문항은 역채점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Yu (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3$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우울

Cho와 Lee (1990)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 중 우울에 관한 5문항과 Choi와 Cho (1990)가 번역하고 표준화한 소아, 청소년 불안 척도 중 걱정 두려움 요인 11문항을 추가하여 Kim (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8$ 이었다.

자기 유능감

아동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 (1982)의 아동용 자기유능감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를 Lee (2003)가 아동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로 학업영역, 사회적 영역, 운동적 영역, 행동적 영역, 그리고 전반적인 자아가치 영역의 총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마다 6개의 문항이 있어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적 자아는 학업수행에 대한 개인의 유능성 또는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자아는 친구들에 의해 수용되는 정도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느끼는지를, 운동적 자아는 여러 가지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함으로써 신체적 유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신체적 자아는 얼굴, 키, 몸무게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행동적 자아는 자신의 행동방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정도, 옳은 행동을 하는 정도, 남들과 다툼을 피하는 정도 등, 전반적 자아가치

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전체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36점에서 14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Harter (1982)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 하위척도별 .71-.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5이었고, 각 하위척도별 학문적 자아, 사회적 자아, 운동적 자아, 신체적 자아, 행동적 자아, 전반적 자아가치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 .82, .78, .81, .76, .83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M초등학교, J초등학교에 본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구두로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50부를 배부하여 232부(92.8%)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4부(83.6%)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한 후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우울,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셋째, 애착안정성, 우울,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는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및 우울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첫 단계로 매개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는 것으로, 회귀식 Y (자기유능감)=상수+비표준화계수 B (애착안정성)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는데 회귀식 Y (사회불안 혹은 우울)=상수+비표준화계수 B (애착안정성)이다. 세 번째 회귀방정식은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과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을 동시에 중

속변수인 사회불안이나 우울에 회귀하는 것으로 회귀식 Y (사회불안 혹은 우울)=상수+비표준화계수 B (애착안정성)+비표준화계수 B (자기유능감)이다.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되,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보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더 커야 한다. 그리고 3단계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못하면 완전매개이고, 유의하면 부분매개역할을 한다(Bennett, 2000).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M초등학교 102명, J초등학교 92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학생 46.4% (90명), 여학생 53.6% (10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11.8세(10-13세)였으며, 평균 체중은 42.2 kg (21-80 kg), 평균 신장은 149.6 cm (130-168 cm)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연구변수의 특성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정도는 평균 29.45점이었고, 사회불안 정도는 평균 47.10점, 우울 정도는 34.55점, 자기유능감 정도는 평균 103.98점이었다(Table 1).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우울, 자기유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애착안정성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애착안정성은 자기유능감($r=.29, p<.001$), 사회불안($r=-.30, p<.001$), 우울($r=-.3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유능감은 사회불안($r=-.54, p<.001$), 우울($r=-.4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즉,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과 우울 정도는 낮아지고, 자기유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과 우울은 낮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194)

Variables	Category	n (%)	M (SD)	Range
Gender	Male	90 (46.4%)		
	Female	104 (53.6%)		
Age (yr)			11.8 (0.75)	10-13
Weight			42.2 (9.06)	21-80
Height			149.6 (6.65)	130-168
Attachment security			29.45 (6.91)	17-58
Social anxiety			47.10 (13.51)	24-97
Depression			34.55 (8.68)	16-57
Self competency			103.98 (18.06)	44-144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Major Variables (N=194)

	Social anxiety	Depression	Self competency
Attachment security	-.30***	-.37***	.29***
Self competency	-.54***	-.45***	
Depression	.59***		

*** $p < .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et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Anxiety (N=194)

Predictors	β	Adjusted R ²	F	p
1. AS → SC	-0.29	.08	17.16	<.001
2. AS → SA	0.30	.08	18.25	<.001
3. Step 1				
SC → SA	-0.49			
Step 2				
AS → SA	0.15	.30	42.97	<.001

AS=attachment security; SC=self competency; SA=social anxiety.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et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N=194)

Predictors	β	Adjusted R ²	F	p
1. AS → SC	-0.29	.08	17.16	<.001
2. AS → depression	0.37	.13	28.54	<.001
3. Step 1				
SC → depression	-0.38			
Step 2				
AS → depression	0.26	.26	2.89	<.001

AS=attachment security; SC=self competency.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및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3단계의 회귀분석에 따라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인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은 .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자기유능감은 β 값 -.4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때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의 β 값(.15)이 2단계의 β 값(.30)보다 작으므로 자기유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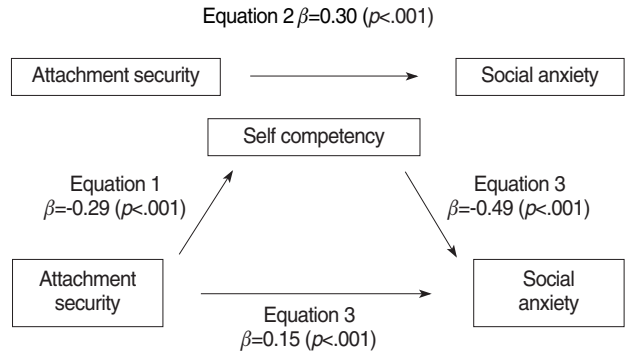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et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social anx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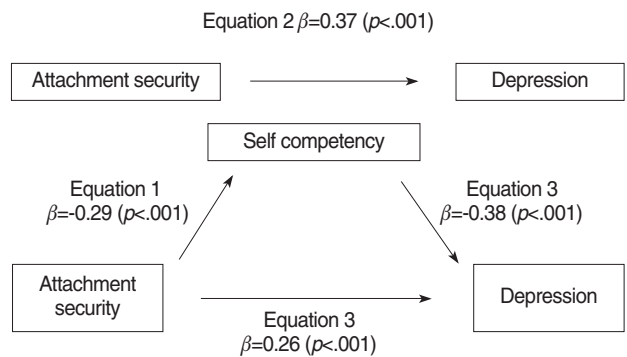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self compet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한다고 볼 수 있다(Figure 1).

애착안정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인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매개변수인 자기유능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은 .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자기유능감은 β 값 -.3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 때 독립변수인 애착안정성의 β 값(.26)이 2단계의 β 값(.37)보다 작으므로 자기유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자기유능감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가 지각하는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우울 및 자기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애착안정성은 사회불안 및 우울과 역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즉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과 우울 점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Allen 등(1998)의 연구와 같은 방향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Bosquet과 Ege-lend (2006)는 영아기에 불안정한 애착형성은 학령전기에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학령기에 그러한 어려움은 불안 증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hamir-Essakow, Ungerer와 Rapee (2005)는 애착유형에 따라 양가, 회피 애착 아동이 안정 애착 아동보다 불안과 내재화 증상으로 진전될 위험성이 높음을 제시하였고, 불안정한 애착유형은(불안/양가 혹은 회피형 유형)은 우울, 불안, 약물남용을 포함한 높은 정신병리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Bifulco et al., 2006).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애착안정과 사회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제공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형성한 아동보다 불안증상 및 우울을 겪게 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히 일반적인 불안증상과 애착 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반면 애착과 사회불안 연관성을 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발달단계상 영아기 애착은 안전행위 추구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 반면 학령기와 청소년기에서 애착은 애착대상자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인지 초점을 두게 되어, 이 연령대에 중요성이 증가되는 또래관계와 큰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직면하는 변화들로 사회불안은 학령기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학적으로 학령기에 두드러지는 특징인 사회불안과 애착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유능감과 사회불안,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높을수록 사회불안과 우울은 낮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은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지각한 유능감 영역이 낮을수록 우울을 초래한다는 연구와(Smári et al., 2001), Cole (1990, 1991)의 모델에 따라 자아가 지각한 유능감의 영역이 우울증상뿐 아니라 사회불안과 같은 정신병리 증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성을 보였다(Uhrlass et al., 2009).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수용 정도는 우울과 사회불안 두 증상과 횡단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Smári et al., 2001), 불안장애 아동이 유의하게 보다 부정적인 사회적 기대를 갖고 사회적 자기유능감이 낮았으며, 사회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와(Chansky & Kendall, 1997)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유능감은 사회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적응의 영향요인으로 입증됨에 따라 자기유능감이

높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신병리적 측면인 사회불안, 우울 관리에서 자기유능감 같은 자기 관련 변인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중재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대상자의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우울 사이에 자기유능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안정성-사회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는 지지되었다. Jang (1998)은 개인의 애착유형이 자기개념이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이것이 다시 정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e (2006)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우울사이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 (200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애착이 직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신체상이나 자존감을 경유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를 보였다. 또한 자아가 지각한 유능감은 우울증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상 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Tram & Cole, 2000). 이는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자기유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불안 및 우울에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유능감이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및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사회불안 및 우울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애착이 불안정한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는 자신의 행동과 자기가치를 평가하는데 엄격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같은 역기능적 신념과 관계될 수 있고, 이것이 사회불안 우울같은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인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유능감 등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자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누적됨에 따라 다영역적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Harter (1982)의 자기유능감은 자아인지에 대하여 다영역적으로 접근한 대표적 개념이다. 또한, 본 연구는 또래와 상호작용 통하여 또래들과 사회적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비교를 통하여 자기개념이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에 자아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과 사회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을 매개변수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애착안정성은 자기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불안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유능감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불안 및 우울을 가진 아동들이 학령기에 여러 발달과업들을 잘 성취해나갈 수 있기 위

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유능감을 키워주는 역할이 더 중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G지역의 일부 5, 6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대상자의 자기기입식에 의해 측정된 것으로 우울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대상자는 보다 모든 측정에서 부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설문지와 인터뷰를 근거한 사정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자기유능감은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및 우울 사이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며 자기유능감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과 연관됨이 입증되었다.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및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자기유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회불안 및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내용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 관리 시 자기유능감을 고려하여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중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아가 지각한 낮은 유능감이 개별적으로 사회불안과 우울을 예측할 수 있음을 밝혔고,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사회불안과 우울에 지각한 유능감의 각 영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애착안정성과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고 매개요인으로 자기유능감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자기유능감 증진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Bell, K.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Bennet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 415-420.
- Bifulco, A., Kwon, J., Jacobs, C., Moran, P. M., Bunn, A., & Beer, N. (2006). Adult attachment style as mediator between childhood neglect/abuse and adult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 796-805.
- Bosquet, M., & Egeland, B. (2006).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anxiety symptom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a longitudinal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 517-550.
- Brumariu, L. E., & Kerns, K. A. (2008). Mother-child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393-402.
- Chansky, T. E., & Kendall, P. C. (1997). Social expectancies and self-perceptions in anxiety-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347-363.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 943-956.
- Choi, J. S., & Cho, S. C. (1990).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 691-702.
- Cole, D. A. (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422-429.
-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81-190.
- Eng, W., Heimberg, R. G., & Hart, T. (2001). Attachment in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Emotion, 1*, 365-380.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Jang, H. S. (1998). The mediating roles of self-related variables in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si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1*, 110-121.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im, H. Y. (2008). *The effect of mothers'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children's perfectionism and children'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 La Greca, A. M., & Stones,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hildren Clinical Psychology, 22*, 17-27.
- Lee, J. S. (2006). *The influence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Y. S. (2003). *The relation of parent's acceptance-rejection to children's assertiveness,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athet, F., Martin-Guehl, C., Maurice-Tison, S., & Bouvard, M. P. (2003).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ttending primary care: A survey with the aquitaine sentinelle network. *L'Encéphale*, *29*, 391-400.
- Park, H. J. (2001). *Effects of attachment security and self-image on depression in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S. J. (2006). *Path model of attachment style on social anxiety: Mediating effect of body image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Shamir-Essakow, G., Ungerer, J. A., & Rapee, R. M. (2005). Attachm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131-143.
- Smári, J., Pétursdóttir, G., & Þorsteinsdóttir, V. (2001).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in relation to perceived competence and situational appraisal. *Journal of Adolescence*, *24*, 199-207.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or or moder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753-760.
- Uhrlass, D. J., Schofield, C. A., Coles, M. E., & Gibb, B. E. (2009).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prospective chang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0*, 329-337.
- Vertue, F. M. (2003). From adaptive emotion to dysfunction: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170-191.
- Yarcheski, A., Mahon, N. E., Yarcheski, T. J., & Cannella, B. L. (2004).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6*, 102-108.
- Yu, K. H. (2003). *Effects of a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social anxiety,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of preadolescents in a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